

한국과 중국의 '전면적 협력 시대' 위한 발돋움

- 제1회 한중 안보학술포럼 개최

박계항

한·중 안보학술포럼의 취지

中國과 周邊의 情勢變化 概況

탈냉전 이후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多極體制'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오던 중국은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世界外交'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다. 1998년 7월 초 장쩌민 주석과 미 클린턴 대통령은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전략미사일 상호조준 해제'를 포함하여 47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그들은 1989년의 천안문 사태 이후 미·중간 대립과 갈등을 정상화하면서 이른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수립하였다.

물론 이 관계는 양국간의 군사적인 동맹관계의 의미는 아니고 외교정책상의 공동협력 관계를 유지하자는 것이었다. 양국이 상호 국가이익이나 가치체계상의 갈등이나 모순들을 서로 이해하면서 특정의제들에 대해 점진적으로 상호협력을 모색해 가자는 것이었다.

미국은 중국의 확장을 저지하고 중국 정치체제의 점진적 개혁을 유도할 수 있다는 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고, 중국은 또 미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에 따라 미국 사회내의 對중국 崩쇄론이 미국의 현실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있었다.

장쩌민은 1998년 11월말경부터는 중·러, 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중·러간의 국경선 문제와 상호간 군사력의 현대화에 적극적인 협조를 시도하였고 중·일간에는 고속철도 건설협력과 화력 발전시설 등 포괄적 경제협력 계획에 합의함으로써 일본의 중국 내륙개발 지원 프로젝트를 유도해 내는 등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취해 왔다.

중국의 이런 積極外交 체제는 국방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장쩌민의 외교행보가 활발하기 시작한 90년대 말부터 2000년 사이에 중국은 새로운 동북아 안보질서 수립과정에서의 중국의 役割과 位相을 정립함으로써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선취하고 장차 대만 통일에 대한 포석을 놓기 위한 방향으로 모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해갔다.

중국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60여개 이상의 국가에 군사대표단과 군사기술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은 물론, 비형식적이며 비정기적으로 군사교류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군사교류 국가 중 미국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다. 그것은 미국과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군사교류를 통해 미국의 對대만 정책에 대한 다방면의 억제효과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남북한에 대한 군사교류의 측면도 그들의 외교적 측면과 마찬가지로 등거리 교류를 전개하고 있다.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적 주도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중국 자국도 어느 국가와도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국의 군대를 해외에 파견하거나 주둔시키지 않는다는 명백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 군비경쟁에 반대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균형적인 군비통제 및 군비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은 주변 또는 어떤 지역의 적으로부터도 영토를 보호하고,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내부적 안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3국이 중국에 관련된 지역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될 경우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3국의 개입의도를 막기 위해 공격도 감행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것이 중국의 多極化 군사전략이며 그들의 군사 현대화의 명분이다.

중국은 현재 국가발전의 최대 과제인 경제발전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때까지 우선적으로 자국의 개혁·개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자 할 것이며 그것이 달성될 때까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그들에게 필수적인 변수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은 정·경 분리 정책으로 남북한 등거리 외교관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남북한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유지해 나가고자 할 것이

다.

중국의 이런 변화속에서 지난 6월 13일 미·러간 ABM(Anti-Ballistic Missile, 탄도탄요격미사일) 협정으로부터 미국이 공식적으로 탈퇴하였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협정 탈퇴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해온 바 있지만 장차 이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야기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지난 5월 14일에는 과거 냉전의 소산인 NATO와 러시아가 손을 잡게 되었다. NATO와 러시아가 국제테러등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의사결정기구인 ‘NATO-러시아 회의’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물론 러시아가 NATO에 완전히 가입된 것은 아니고 가입할 수 있는 전 단계에 불과하지만 러시아에게는 이것은 커다란 변화이고 의미가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5월 23일에는 미·러간 안보경제 양축을 위한 협력강화의 일환으로 ‘전략공격용 전력감축협정’을 비롯하여 양국간의 안보경제 파트너십에 합의하는 5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제 양국간 정상들은 불량국가에 대한 의견을 제외하고는 ‘우호협력의 새로운 차원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에 서로 일치점을 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던 지난 5월의 어느날, 부시는 푸틴 대통령의 모교인 상트 페테르부르크 대학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최상의 국제관계는 한쪽이 상대방을 배려해 줄 때이며, 어떻게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인지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이렇게 미·러간 밀월관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미래에 대한 양국간의 실리이득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이다.

구소련의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유라시아 지역의 공백을 미국은 결코 놓칠 수 없으며 러시아가 미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도와주는 대신에 미국은 러시아에게 지금의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양국의 정상들은 밀월의 관계로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에게 그만큼 가치가 있을 때까지만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

미·러간의 정상회담을 치루기 이전에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중국의 초하오펜 국방장관과 러시아의 전략적 안보의 방향과 NATO-러시아간의 관계개선에 대해 서로 논의를 하였다. 이에 대해 초하오펜 국방장관은 적극적인 비평은 하지 않았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과거 냉전의 군사기구에 러시아가 가입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조금은 언짢은 마음을 표현했다고 한다.

이바노프 국방장관은 또 미·러간 정상회담 바로 전날에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과도 회담을 하였다. 이바노프 국방장관은 ‘악의 축’ 발언으로 미국에 대해 심기가 불편한 북한에게 러시아는 ‘악의 축’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북·러 우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물론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상기시키는 외교의 묘미까지 발휘하였다.

미·러간, 미·중간의 관계개선이 증진될수록 한반도의 문제는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에 주요한 이해관계로 얽혀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변화된 외교적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남북간의 관계가 다양한 방법으로 진전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게 한반도의 존재가 불가분의 관계이듯이 한반도에게 중국과 러시아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미·북간의 관계개선과 함께 미·중간, 미·러간의 관계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외교적 관심과 행보를 유지해야 한다.

韓·中間 ‘民間次元의 軍事交流’ 活性化 必要性

이런 동북아의 변화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에 주변 강대국들이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정부간의 협력과 함께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류활동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 자명하다.

금번 21세기 군사연구소와 중국 국제우호전략회 산하 ‘평화 및 발전연구센터’간의 ‘제1차 안보 학술포럼’은 이런 맥락에서 한·중간 민간외교의 주요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번 행사가 표면적으로는 민간차원의 교류행사에 불과한 듯 보이지만 중국의 체제를 감안해 본다면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관심과 관여가 필연적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국제우호전략회는 중국 외교부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고 중국 민정부에 공식 등록되어 있는 독립적인 법인자격을 가진 민간단체이며 본 연구소의 카운터 파트너인 국제우호전략회 산하 ‘평화 및 발전연구센터’는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을 비롯하여 여러나라의 기관들과 긴밀한 교류를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소와는 제1차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지만 북한과는 벌써 수년째 학술회의 및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중국의 등거리 외교를 위한 일련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등 단기적인 외교관계의 유지에 노력함과 동시에 좀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상호간에 깊은 신뢰를 쌓고 관계를 다양하고 두텁게 하기 위하여 민간차원의 교류에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중국의 국제우호연락회는 그런 취지에서 창설되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21세기 군사연구소도 국방부 등록 민간연구소로서 그런 기능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하려고 한다. 제1회 한·중 안보학술포럼 개최는 한·중간 국방, 외교,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시기 적절하고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매우 유효한 교류였다고 본다.

한·중간 민간 친선교류와

안보 학술포럼

개요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북경 베이징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한·중 안보학술포럼은 한국측 ‘사단법인 21세기 군사연구소(소장 김진욱)’와 중국측 ‘국제우호연락회’ 산하 ‘평화 및 발전연구센터(주임 채문중)’의 공동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측에서는 조성태 전 국방부장관을 단장으로 하여 김인종 전 육군 대장, 권해조 예비역 육군 준장, 김진욱 21세기 군사연구소장, 국방대학원 황병무 교수, 국방연구원 백승주 연구위원, 21세기 군사연구소 서상문 연구위원, 21세기 군사연구소 박계향 사무국장 등이 참가하였다.

중국측에서는 츠하오펜 현 국방부장과 정치협상회의 부주석겸 국무원 부총리 조남기 상장 등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李長順 : 국제우호연락회 부회장

李寧 : 국제우호연락회비서장, 평화 및 발전연구센터 연구원

蔡文中 : 국제우호연락회부비서장, 평화 및 발전연구센터 주임

泰永椿 : 평화 및 발전연구센터 연구원

潘振强 : 국방대학 전략연구소 소장, 평화 및 발전연구센터 고문

閻學通 : 청화대학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李志業 : 현대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戚保良 : 현대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丁邦泉 : 국방대학 전략연구소 연구원

鮑斌 : 군사과학원 전략부 연구원

師小芹 : 군사과학원 전략연구부 연구원

王宜勝 : 군사과학원 외군부 연구원

包良明 : 북경국제우호연락회 비서장

鄧文慶 : 국제우호연락회 아주부 처장, 평화 및 발전연구센터 부연구원

劉漢武 : 국제우호연락회 아주부 부처장, 평화 및 발전연구센터 부연구원

周新政 : 평화 및 발전연구센터 부연구원

朴明植 : 평화 및 발전연구센터 부연구원

朴雪梅 : 국제우호연락회 아주부 과장

국제우호연락회

국제우호연락회(China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Friendly Contact, 이하 우련회)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민간차원의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84년 12월에 민간기구로 창립되었다.

국제우호연락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에서 공식 등록된 민간 대외우호단체로서 지금까지 전국에서 30개의 단체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단체들이 각 성, 중앙직할시, 자치구의 지방 국제우호연락회로 구성되어 있다.

우련회의 본부는 상설지도부 이사회 및 각 직능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퇴직 혹은 현직에 있는 정부관리, 외교관, 교육가, 기업가, 예술가,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련회는 중국의 관과 민의 각계와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

우련회는 창설될 때부터 그 목적과 취지가 시종일관 국제적 민간우호교류 및 협조를 추진시키고 세계평화 및 발전을 추진시키는 것이었다. 그런 취지에 따라 우련회는 대외우호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각 나라와 우호교류관계를 맺고 발전시켜 왔으며 평균 100여개 외국방문 대표단이나 방문팀을 접대하였고 또한 30여회 중국인사가 해외방문을 했다.

우련회는 각국 정부 및 민간의 우호교류를 중요시하고 많은 국가의 정부기구 및 사회단체, 정계 인사와 관계를 맺었고 중국과 외국간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쌍무적관계 발전을 추진시키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우련회는 외국 경제계, 기업계 인사들과 폭넓은 교류를 통해서 중국의 경제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중국의 시장 상황을 소개해 주고 합작파트너를 구하는데 협조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중국투자 와 기업운영을 추진시키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기업가들의 국제교류 업무도 적극 협조해 주고 있다.

우련회는 대외적 문화교류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국의 문화, 예술, 종교, 체육 등 여러 분야의 인사 및 단체들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중국에서 각종 유형의 전람, 예술공연, 체육경기 활동을 진행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자국의 문화 예술 단체의 해외순방 및 전람회를 주최하고 있다. 우련회는 또한 교육계의 대외문화교류를 적극 추진시키고 있다. 우련회는 국제문제에 중점을 두고 국제학술교류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다. 우련회는 산하에 ‘평화 및 발전연구센터’를 두고 상당한 수의 국내외 유명한 연구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센터에서는 ‘평화 및 발전’ 계간지를 출판하고 학술지로서 국제문제와 관련된 학술논문을 게재하고 국제문제 심포지엄도 주최한다.

우련회는 창설된 때로부터 바로 중국 국가 지도자들 및 사회각계 인사로부터 배려와 지원을 받아왔다. 중국 지도자들은 계속 우련회의 추진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우련회가 초청한 손님들을 접견했다. 우련회의 사업은 또한 정부 해당부서로부터 힘있는 지지를 받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련회는 중국 인민들의 대외우호사절의 역할, 중국과 외국간의 친선을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 그리고 국제협작을 위한 유대역할을 적극 발휘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과 외국간의 민간교류에 보다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련회의 초청으로 그동안 외국의 많은 단체 및 개인들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일본조선증진협회장인 Mr. Sasakawa Ryoyichi씨가 우련회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는 등소평 주석과 왕첸이 접견하기도 하였다. 또한 Mr. Sasakawa Ryoyichi씨가 일·중우호기금 회장 자격으로 중국의 방문이 이루어졌을 때는 장쩌민 주석과 후진타오 부주석의 접견을 받은 바 있다.

우련회는 베이징에 있는 중·러 우호평화발전위원회와 함께 중·러간 외교관계 설립 50주년과 푸쉬킨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연주회를 개최한 바도 있다. 이때는 장쩌민과 Li Langing, Ding Guangen이 연주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미국의 마스터카드社의 부사장을 중국에 초청하였을 때는 주룽지 총리가 그들을 접견하였다. 우련회 李長順 부회장은 태국의 전 국무총리였던 Chawalit Yongchaiyutt씨를 접견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조성태 전 장관을 비롯한 우리 21세기 군사연구소 일행이 방문했을 때는 초하오텐 국방부

장이 우리를 접견하였다.

평화 및 발전연구센터

평화 및 발전연구센터는 중국 국제우호연락회의 연구기관으로서 1984년 창립되었으며 주로 국제문제 및 안보문제를 연구하는 학술기관이다. 이 연구소는 창립 이후 주로 중국과 주요 나라들 간에 안보문제와 관련된 일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경제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연구소는 아시아·태평양양과 등 5개 분과와 ‘평화와 발전(平和與發展)’이라는 국제문제 연구논문집의 편집부로 구성되어 있다.

평화 및 발전연구센터는 많은 나라들과 함께 중국에서 혹은 해외에서 학술회의 및 친선교류를 하고 있으며, 국제연락회의 예산을 지원받거나 혹은 중국과 해외로부터의 관련기관에서 후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사단법인 21세기 군사연구소

21세기 군사연구소는 국방부에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그 설립목표는 “민군교류의 확대”이며 민군 상호간의 교류를 바탕으로한 국방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소는 ‘대국민 상무정신 고양 및 안보저변 확대로 민군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민간자원과 민간기술의 동원으로 국방과학 기술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21세기 국방분야의 초석 및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연구소는 대국민 홍보와 국방정책 학술 세미나 및 군사과학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소에서 발간하고 있는 월간 ‘군사세계’는 대국민 홍보를 위한 군사전문매체로서 현역 및 예비역 회원들과 젊은 군사매니아들에게 널리 읽혀지고 있다.

연구소는 그외 군사전문서적들과 군관련기관들의 회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인터넷 웹사이트 (www.military.co.kr)를 통해 군과 민의 gate keeper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방문간 회견 및 행사정리

조성태 전 국방장관과 초하오펜 국방부장 회견

6월 2일 북경호텔에 짐을 풀고 한국측 인원들은 조성태 전 장관의 방에 모여 방문기간중 협조할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17시 30분에 8·1청사에서 있을 초하오펜 국방부장과 의 회견과 또 앞으로 중국에서 이루어질 계획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표단의 단장 자격으로 참가한 조성태 전 국방장관(이하 장관으로 호칭)과 김인종 예비역 대장은 1999년 8월 처음으로 개최된 한·중 국방장관회담의 당사자로서 민간인이 된 이후 다시 중국을 찾아 현역 당시 만나 양국간 현안문제 및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했던 초하오펜 국방부장을 다시 만난다는 사실에 조금은 흥분하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현역 장관과 국방부 정책실장으로서 한·중 군사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바가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이번 기회가 현역시절에 함께 계획하고 추진했던 국방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조장관은 특히 이번 행사에 대하여 한·중 수교 10주년에 즈음하여 민간차원의 한·중 안보학술교류에 적극 동참하는 기회를 가졌다는데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 양국가간 민간연구소의 전·현직 고위 정책결정자 및 연구자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양국간의 안보문제에 대해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양국의 공식관계를 위해서도 좋은 기회가 됨은 물론이다. 특히 이번 모임의 중요한 기능은 한·중간 안보학술포럼을 통하여 우리의 정치제도 특징상 안보외교의 주역들이 자주 교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속에서 전직 국방부 장관이 안보외교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새로운 모습의 다원적 안보외교의 메카니즘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었다.

초하오펜 국방장관과의 회견시간이 되어 우리 일행은 8·1청사에 도착하였다. 안내를 받아 회견 장소로 가보니 초하오펜 국방부장과 그의 부인이 우리 일행을 맞이하였다. 그들은 조성태 전 장관과 김인종 장군과도 친분있는 인사를 나누었다. 회견장 입구의 가림판 역할을 하고 있는 한쪽의 그림으로 안내받은 우리 일행은 초하오펜 부부와 함께 한쪽의 그림표구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청사에서 초하오펜 부장을 만나기 전까지 본 기자는 이 회견이 일요일 오후에 있었고 또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하오펜 부장이 간편복장으로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초하오펜 부장은 정식 군복을 착용하고 회견장 앞에서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중국인들의 특성은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라는 말을 하는데 초하오펜 부장은 과거 현역으로서 만난 조성태 국방장관을 진정한 친구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김인종 장군과 초하오펜 부인과의 각별한 인사로서 그들의 ‘누님 동생’ 사이를 재인식 시켜주기에 충분하였다.

회견을 위해 자리에 앉은 후 조성태 전 장관은 먼저 초하오펜 부장에게 감사인사를 하였다. 그는 “이미 현직에서 자리를 떠난 사람에 대하여 이렇듯 반갑게 환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초하오펜 부장도 활짝 웃었다. 기자는 그 순간 초하오펜 부장의 웃음에서 한·중간 과거 역사가 오히려 미래를 더욱 가깝게 만들 수도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조성태 전 국방장관은 “본인은 중국방문이 세 번째이고 세 번 모두 한국 군 관계자로서는 ‘그 당시 모두 최초 방중’이라는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95년 국방부 정책실장으로서 중국을 방문하였고,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1999년 8월, 遲浩田 국방부장의 초청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하였고 이번이 세 번째이다. 본인이 국방부 장관으로 중국을 공식방문한 그 다음해 2000년 1월에 遲浩田 국방부장께서 한국을 답방하심으로써 한·중 국방장관 상호 방문이 성사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 양국간 군사교류는 한차원 높게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확신한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불과 10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관계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이는 양국 국익에도 기여의 정도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현직 당시 한·중간 국방장관 회담시에 제안하였던 4가지 안건에 대해 다시 거론하였다. “안보 군사분야에서도 우리 두 나라는 많은 전략적 공동 이해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첫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둘째, 한반도 정전체제가 남북한간의 대화에 의하여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환될 필요성 셋째, 한반도에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억제 넷째, 지역내 새로운 군비경쟁을 예방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장관은 “이렇듯 전략적 공동 이해를 가지고 있는 우리 두 나라가 안보 군사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다양화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21세기 양국의 국가이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고 초하오펜 부장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하였다. 조장관은 또 “현재 한·중 군사관계는 초하오펜 부장의 영단에 의해 함정, 항공기가 교환방문되기 까지 이르렀다”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초하오펜 부장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조장관은 “지난 현직 당시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초하오펜 부장이 준 취호를 잘 표구해서 개인이 갖는 것보다 한국의 군사박물관에 기증하는 것이 더 나으리라 판단하여 기증하였다”고 설명하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의 2008년 북경 올림픽 개최를 진정으로 환영하고 있으며 지금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월드컵 대회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팀을 응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것만 보아도 한·중 관계의 앞날이 매우 밝다고 확신하며 앞으로 양국 국민들간의 이러한 신뢰관계에 부응하여 한·중간 교류 및 학술회의가 연례적으로 실시되어 상호 이해의 폭이 더욱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말했다.

이에 대해 초하오펜 부장은 “조장관의 말을 이제 통역을 안해도 80%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다”고 죠크를 하여 회견장의 모든 사람들이 웃었다. 초하오펜 부장은 “한·중 국방장관간의 합의 내용에 대해 지금도 실천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중 수교 10년간 양국은 정치 경제 무역 문화 군사 등 각 분야에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큰 발전이 있었다. 한·중간 협력 동반자 관계가 이제 전면적 협력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조장관이 다년간 한·중 군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준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초하오펜 부장은 “한반도 문제에 관련하여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북 쌍방이 계속해서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초하오펜 부장은 또 다른 시각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포용정책에 대해서 미국은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것과 미국의 악의 축 발언은 미국의 어리석음의 발로이다”라고 하면서 “한·미 군사훈련은 남북한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북·중비밀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무리한 행동으로 인하여 중국은 감정을 훼손당했다고 서술하면서 미국내에서도 부시행정부와 부

시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TMD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초하오편 부장은 이어서 “한·중간에는 차이정보다 공통점이 더 많다. 공통점으로는 일본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것이고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월드컵에 참석은 못했지만 개막식에 참석한 김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크게 동감했다고 말했다.

조장관은 “이번의 한·중 안보포럼이 일회성이 아니고 매년 연례적으로 장소를 한·중간에 바꿔가며 개최하기로 되어 있다. 초하오편 부장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한다. 초하오편 부장은 과거 50여년전 한국전에서 전투를 했던 경험이 있고 현재 한반도의 상황에 일말의 책임이 있으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해 초하오편 부장이 크게 웃었다. 조장관은 “초하오편 부장이 언젠가 현역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한·중안보포럼을 통해 한국과의 인연을 계속 키워나가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하오편 부장은 “현재 우리 모두는 노력하고 있으며 합의된 공론에 대해서는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조장관은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초하오편 부장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말을 남기고 환영만찬 자리로 옮겨 갔다.

한·중간 전면적 협력 관계

만찬 자리로 옮겨가면서 기자는 초하오편 부장의 말중에서 ‘전면적 협력’이라는 말에 상당한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깨달았다. 과거 한·중간은 ‘선린우호 관계’였다. 그리고 1999년 8월 한·중간 국방장관 교류 및 군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방문시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한차원 높은 관계수립을 하였다. 그런데 오늘 다시 초하오편 부장으로부터 ‘전면적 협력 관계’라는 말을 들으면서 한·중간 관계유지가 시간을 다투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고 한·중간 대북문제에 대해서 지향점과 방법론이 이제는 일치할 수도 있고 그럴 때가 가까이 왔다는 희망을 느꼈다.

이런 저런 감회에 젖다보니 우리 일행은 이미 만찬장에 들어서고 있었다. 만찬장에서는 국내 그 어느 만찬장에서 느꼈던 것보다 화기애애함을 느꼈다. 먼저 초하오편 부장이 “한·중간 군사교류의 물꼬를 튼 조장관이 다시 이렇게 와서 함께 시간을 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 조장관과 함께 협의했던 일들이 현재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건배를 제의했다. 양측의 참가자들이 서로 번갈아 가며 건배를 제의하면서 서로의 노력을 다짐했다. 특히 초하오편 부장의 부인의 참석으로 만찬장은 더욱 화기애애했다. 초 부장의 부인은 마음이 넓어 보였고 무엇이든지 다 받아줄 것 같은 포근한 인상이었다. 과거 초하오편 부장 부부가 한국에 왔을 때 1박을 제주도에서 머물렀는데 그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조장관은 2군사령관으로 있던 김인중 대장을 제주도로 가도록 하였고 김 사령관은 자신의 고향인 제주도에 초하오편 부장 내외를 접대하였다. 이때 부장 부인과 김 사령관은 ‘누님, 동생’으로 친밀감을 돈독히 쌓았다고 한다. 그런 인간적인 관계는 앞으로 알찬 씨앗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해 본다. 이 날의 8·1청사에서 행사에 대해 CCTV에서 방영하였고 인민해방군보 2002년 6월 3일자 제1면에 게재되었다.

제1회 한·중 안보학술포럼 개최

6월 3일 09시 베이징 호텔에서 가까이 있는 국제호텔에서 제1회 한·중 안보학술포럼이 개최되었다. 李寧 국제우호연락회 비서장의 사회멘트와 함께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개회인사는 중국측에서는 국제우호연락회의 李長順 부회장이, 한국측에서는 조성태 전 장관이 하였다.(논문발표내용은 본지 57쪽 참조)

오 전 주제발표 : ‘동북아안전정세’

사 회: 평화 및 발전연구센터 蔡文中 주임

발표자: 이 녕 - 9·11사건 이후 동북아안전형세와 중·한관계

정방천 - 9·11사건 이후 동북아안전형세

이지업 - 러시아 붕괴 이후 동북아 정책

권해조 - 9·11테러 사태가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왕의승 - 9·11테러사건 이후 동북아안전형세

토론자: 토론 발표 및 자유토론(영학통외)

오 후 주제발표: ‘한·중관계의 증진’

사 회: 21세기 군사연구소 金鎮旭 소장

발표자: 황병무 - 한·중간 안보대화과 군사교류의 발전방향

백승주 - 2001 북·중관계에 나타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포 빈 - 조선반도 평화와 중국안전

토론자: 토론 발표 및 자유토론(번진강, 진영춘, 척보량 등)

세미나가 끝난 뒤, 국제우호연락회 아주부 등문경 처장의 사회로 채문중 평화 및 발전연구센터 주임과 김진욱 21세기 군사연구소 소장의 총괄연설이 있었다. 세미나는 조용하면서도 차분하게 진행되었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공통분모를 찾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다.

한·중간 학술교류합작 의향서 조인

세미나를 마치고 국제우호연락회의 李長順 부회장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하기 위하여 한·중 양측 일행은 북경호텔로 돌아 왔다. 만찬에 앞서 한국의 사단법인 21세기 군사연구소와 중국의 국제우호연락회 평화 및 발전연구센터간에 ‘학술교류합작 의향서’의 조인식이 있었다.

조인식에서 국제우호연락회의 李長順 부회장은 “이렇게 한 번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만남을 가져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관계 발전을 이루어 나가자”고 제안하면서 “한국과 중국은 절대로 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양국간의 전략적 이해가 같다는 것보다 좀더 중요시 되어야 할 요소들을 우리들은 갖고 있다. 즉, 문화, 전통, 문자를 함께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유구한 역사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李 부회장은 “평화와 발전이란 우리 연락회의 기본 취지이지만 중국이 장기적인 입장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세기를 뒤돌아보면 과학이 발전된 시기이기도 하지만 피가 어린 시기이기도 하다. 지난 세기에 두차례 큰 전쟁과 그외 많은 전쟁이 있었다. 20세기를 넘어 21세기에는 평화롭고 안정되고 전쟁이 없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21세기 초인 지금 끊임없이 발생하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충돌, 9·11 테러사건 등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21세기 군사연구소’라는 이름이 아주 잘 지어진 이름이라고 말했다.

조성태 단장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된 이래 중국에 3번째 방문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한·중 군사관계가 예비역과 민간기구에서 토론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경이롭기까지 하다”고 말하면서 “한국군과 중국군은 전략적 이해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토론의 장까지 마련해 준 국제우호연락회의 현실적인 도움에 감사하며 큰 일을 했다”고 치하했다. 조 단장은 “오늘 하게 될 조인식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으며 이런 취지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양국에서 교대로 지속된다면 한·중 군사교류가 한단계 성숙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長順 부회장과 조성태 단장의 인사가 끝나고 21세기 군사연구소의 김진욱 소장과 평화 및 발전연구센터의 채문중 주임이 나란히 앉아 ‘학술교류합작 의향서’에 조인하였다. 김진욱 소장은 그동안 가장 아끼던 만년필로 의향서에 서명을 하기 시작하였고 채문중 주임도 마찬가지로였다. 서명을 하는 동안 조성태 단장은 양측의 인사들을 불러 ‘모두가 이 조인식에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식이 끝난 뒤, 만찬장에서 조성태 단장은 “보불전쟁 이후 프랑스와 독일은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지상최대의 원수국가가 되었지만 두 국가의 국민 총생산량이 5천불이 넘으면서 서로 협조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유럽 유니온 국가가 되어 국경도 없고 관세도 없이 사는 것은 물론이고 독불연합군처럼 군대도 단일화되고 있다. 본인은 동북아의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의 21세기 전망을 아주 좋게 본다. 그러나 이런 상황속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북한이다. 이제 북한이 중국을 닮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에서 외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 일본 세계은행, 아시아은행들이 투자를 해야 하는데 수교를 안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과 제일 가까운 중국이 그것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평화 및 발전연구센터의 채문중 주임은 “21세기 군사연구소와 평화 및 발전연구센터가 결혼을 한 것과 같다. 초하오텐 국방부장의 허락이 있었고, 한국의 국민들이 사랑하는 조성태 장관을 증인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호화로운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李長順 부회장이 만찬까지 열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한국의 21세기 군사연구소와 중국의 평화 및 발전연구센터는 오래오래 살며 많은 자손들도 만듭시다”라고 건배를 제의해 만찬의 분위기를 돋구었다.

이에 대해 김진욱 소장은 “한·중 군사교류의 물꼬를 튼 조성태 장관과 초하오텐 국방부장이 지켜 보는 가운데 한·중간 합작의향서에 조인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또 조인식을 축하해 주기 위하여 만찬을 열어주신 이장순 부회장께 감사드린다. 이제 우리가 결혼을 했으니 그야말로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을 나눕시다”라고 말하면서 채문중 주임에게 러브샷을 제안했고 그 둘은 서로 팔장을 꺼안고 러브샷을 하였다. 러브 샷이 끝나자 李長順 부회장은 “두 연구소가 하늘과 땅처럼 오래 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국제우호연합회의 李寧 비서장은 “짧은 수교 10년 동안에 한·중관계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 측면에서 기대 이상으로 발전하였다. 그것은 한·중간의 공통의 역사적, 문화적 소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중간에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공통의 역사와 많은 문화적 바탕을 갖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정치가들이 공통된 염원과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 연합회에는 세계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있다. 특히 한국 친구들과는 심오한 관계라고 느끼고 있다. 아무튼 뜻깊은 자리에서 뜻깊은 일을 했고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李寧 비서장은 “중국의 모든 말은 술 속에 들어있다”고 강조하면서 건배 제의를 하였다.

총 18명이 참석했던 李長順 부회장 주최 만찬은 정말 화기애애했다. 李寧 비서장의 말처럼 중국의 모든 말은 술 속에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알코올이 강한 술을 먹되 흐트러지지 않는 것도 허튼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도 그들만의 특징인 것 같다. 늘 술을 가까이 하면 흐트러진 모습을 보기가 일수인데 독한 술을 먹어도 반듯하게 잘라놓은 떡처럼 절제하는 모습이 이성적으로 보였다. 참가자 모두는 즐거웠고 이런 관계를 통하여 서로가 진정한 인간의 모습에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았다. 중국의 변화속도를 감안해 본다면 얼마만큼 서로가 노력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했다.

관람 및 방문

6월 4일 오전에는 북경 시내에 있는 군사박물관을 관람했다. 모택동 동상을 보면서 들어선 박물관은 고대 군사유물로 가득 차 있었다. 인상이 깊었던 것은 우리나라에서 기증한 거북선과 1998년 8월 안병길 국방차관이 기증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것이었다. 또 2백여 종류의 각종 총기류가 전시되어 있던 방도 인상적이었다. 향미원조 전시실을 볼 수 없었던 것이 조금은 애석하게 생각된다. 우리 일행을 안내한 통역자는 “다음에 오셔서 보실 곳도 남겨 두셔야죠?”라고 웃음으로 대신했지만 서운했던 것은 사실이다.

우리 일행은 잠시 여유있는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북경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龍慶峽(용경협)으로 가서 그동안의 긴장되었던 마음을 풀었다. 인공의 호수위에서 곡예사들이 산봉오리와 산봉오리 사이를 가는 끈에만 의지하여 3인 1조로 줄타기를 하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배를 타고 호수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이 광경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관광객을 위한 눈요기감으로는 너무나 위험한 곡예였다.

6월 5일에는 중국불교협회를 방문하였다. 부처님의 이가 모셔져 있다는 八大處 靈光寺에도 가 보았다. 전쟁에 의해 절의 한쪽에 있던 탑이 폭격으로 파헤쳐지자 그곳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발견하게 됐다는 영광사 스님의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그 사리가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습격을 당했는데도 사리함만 멀쩡하게 손상을 입지 않고 주변만 폭격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설명이었다. 불당에는 여러 나라에서 기증해준 금빛의 불상들이 모셔져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조금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기다렸다. 왜냐하면 한국의 절밥은 정말 정

갈하고 깨끗한 음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육식이 많은 중국에서는 어떤 절밥이 나올까 하고 기대반 호기심반으로 기다렸다. 하나씩 나오는 음식들은 절묘하게 조각한 장식품으로 장식된 음식들이었다. 물론 모두가 채식이었지만 음식이 너무 화려해서 이 장식품들을 누가 조각했느냐고 물어보니 밖에서 출장은 주방장의 솜씨라고 대답했다. 잠시 후 음식을 거의 다 먹었을 때 주방장이 들어왔다. 그는 중국에서도 유명한 주방장이라서 그의 음식을 우리에게 대접했다고 설명했다. 맛있는 장식 조각품을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하였지만 순수한 중국절의 절밥을 먹고 싶었는데 밖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차린 음식을 먹어서 조금은 배부른 아쉬움을 느꼈다. 그러나 훌륭한 채식단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또는 그렇게까지 배려해 준 국제우호련락회에 감사를 드리고 싶다.

대사관 방문과 월드컵 시청

6월 4일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김하중 대사의 초대로 저녁식사를 하였다. 저녁을 마친 후 김하중 대사 일행과 우리 일행은 다함께 대 폴란드전 월드컵 경기를 시청하였다. 조마조마하는 가슴을 진정하며 1골만을 기다리며 숨을 조이다가 1골을 성공하는 순간 모두 일어나서 환성을 올리는 모습이 역시 ‘우리는 하나구나’ 하는 강한 끈으로 묶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다시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기쁨은 국내에서 접했던 기쁨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었다. 외국에 나가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고 하더니 아마도 그런 맥락인지 감동의 물결이 다른 모습이었다.

폴란드전부터 가슴을 조이게 했던 우리 선수단은 결국 4강까지도 성공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내친김에 우승까지!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지만 끝까지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외친다면 반드시 우승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방문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국제우호련락회 李寧 비서장은 “한국의 8강 진출은 아시아의 영광이며, 한국 선수들의 불굴의 투지와 의지로 단합된 모습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한국이 4강에 진출하기를 바라며 중국의 많은 사람들도 한국팀을 응원하고 있다”는 공식 축하메시지를 보내왔다.

李寧 비서장의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李寧 비서장의 또 다른 말중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손을 맞잡고 한·중 양국이 우호적으로 노력하자”는 말에 본 연구소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5천년 역사보다 50년의 역사에 패인 골을 더 깊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그동안의 골을 조금씩 또는 하나씩 메꾸어 나간다면 양국간에 언젠가 좋은 열매를 맺을 때가 있을 것이다.

조남기 상장과 의 만찬

6월 5일 저녁 만찬은 중국 정치협상회의 부주석겸 국무원 부총리인 趙南起 상장의 주최로 이루어졌다. 趙南起 상장은 북경국제우호련락회의 명예회장으로서 북경국제우호련락회는 중국국제우호련락회의 지회중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큰 지회로 알려져 있다. 만찬은 우리 일행이 머물러 있던 북경호텔에서 이루어졌으며 만찬 이전에 조성태 단장과 조남기 부총리와의 회견이 있었다.

趙南起 부총리는 “중·한 수교 10주년이 되었고 그동안 정치, 경제, 문화, 군사, 환경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고 말문을 열면서 “중·한의 관계는 몇 천년을 이어왔으며 중국의 최고 총 지도자와 한국의 대통령, 총리의 방문이 있었고 1999년 이후 군사교류 방문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와 더불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993년 당시 한·중 경제교류가 55억달러 정도였는데 2001년에는 350여억달러로 매년 25%씩 급성장하고 있다. 가깝다고 좋은 나라라는 것은 아니지만 중·한간은 가깝고 좋은 이웃이다. 일부는 혈연적인 관계까지도 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盧’씨와 ‘趙’씨는 산동성이 그 뿌리라고 말해 서로가 머리를 끄덕였다. 趙 부총리는 “이렇게 지역적, 혈연적으로 긴밀한 중·한간에 더욱 긴밀해야 하며 21세기 군사연구소뿐만 아니라 양국의 국민간에도 우호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성태 단장은 “민간인의 신분으로 다시 중국에 와보니 1999년 최초로 한·중 군사교류의 물꼬를 튼 시절이 생각난다. 지난 3일 초하오펜 부장을 만났을 때 '99년도에 제안하고 합의하였던 내용들을 하나씩 현실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는 한국전쟁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간의 공동이익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장관은 “과거 북한의 김일철 부장을 만났을 때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趙 부총리가 주최한

만찬도 월드컵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화기애애하게 서로서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리를 마치며

이렇게 해서 4박 5일간의 중국방문이 모두 끝났다. 공항에 환송차 나와준 李寧 비서장, 鄧文慶 처장, 劉漢武 研究員 등과 2002년 한국에서의 제2회 한·중 안보학술포럼 때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며 아쉬움을 남기고 헤어졌다. 중국일정을 마치고 중국을 떠나면서 마음 쓰이는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배울 점이 많았던 시간이었다.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도 서로의 생각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그들이 얻고자 한 것들을 얻었으리라고 확신한다.

이유는 서로가 다르겠지만 몇 일간 함께 지낸 우리 양측은 모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함께 공감하였다. 전쟁에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 양자가 공히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군인은 물론 민간인 구분없이 모두가 평화를 바라는 바이지만 그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모여앉아 각자가 추구하는 이익의 최대공약수를 진지하게 만들어내고자 고민할 때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제1회 한·중 안보학술포럼'을 잘 발전시켜 양국간에 공식채널을 지원하는 좋은 친교의 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제1회 한·중 안보학술포럼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준(예비역 육군 대장, 전 KT 사장)과 대한항공의 심이택 사장, KAI의 길형보 사장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다. 기업의 이윤과 관계도 없는 무형의 가치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그 분들이 계시기에 이번 행사가 태동을 하게 된 것이다.

2003년 한국에서 다시 뜻깊은 만남을 갖기 위하여...

[more|top](#)